

# 3차 치료 센터에 간질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의 편두통 동반이환

## Comorbidity of migraine in children presenting with epilepsy to a tertiary care center

Sarah A. Kelley, MD  
Adam L. Hartman, MD  
Eric H. Kossoff, MD

**목적:** 편두통과 간질은 소아에서 가장 흔한 두 가지 신경계 질환이다. 이 연구는 발작의 부담이 높거나, 특정 간질 증후군에서 편두통의 위험이 증가하는지 분석하였다. 한편 소아 간질 코호트연구에서 편두통에 관련된 분석이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였다.

**방법:**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 사이에 Johns Hopkins Hospital을 방문한 400명 소아를 대상으로 하였다. 간질이 있는 소아에게 두통 증상과 치료에 대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, 발작 종류, 발생 나이와 치료에 대해 검토하였다.

**결과:** 소아 간질 인구에서 편두통의 유병률은 25%로, 간질이 없는 소아(3~23%)에서 보고된 것보다 높았다. 편두통은 10세 이상의 소아( $p=0.0009$ ), benign epilepsy with centrotemporal spikes (BECTS) ( $p=0.003$ )가 있는 소아와 청소년근간대뇌전증(juvenile myoclonic epilepsy, JME) ( $p=0.008$ )가 있는 소아에서 더 호발하였다. 편두통의 발생은 간질이 진단되고 난 후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( $p=0.0002$ ), 난치성 간질에서 더 호발하지는 않았다. 단지 50%의 환자에서 매주 또는 그 이상 신경과외과에 의한 두통 치료가 이루어졌다.

**결론:** 편두통은 3차 치료 센터의 소아 간질 환자의 1/4에서 동반되어 있다. 나이가 많거나 BECT, JME인 소아들에서 편두통이 더 많았다. 그러나 편두통은 신경과 클리닉에서 드물게 다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, 소아 간질 환자의 치료 시 편두통의 동반은 반드시 검토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된다.

Neurology® 2012;79:468-473